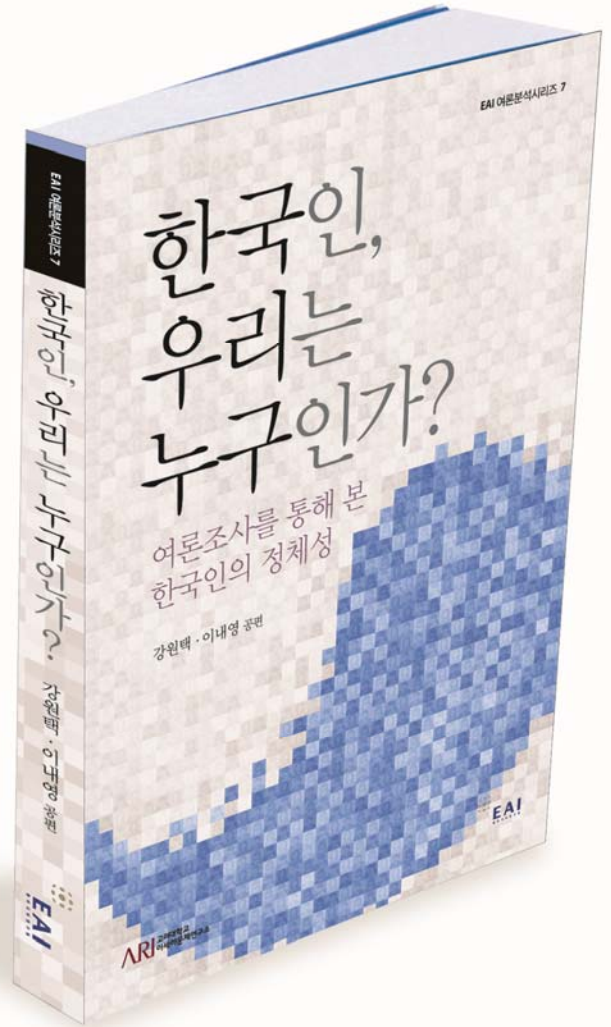


지난 5년 간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한다.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 편저자_ 강원택 · 이내영 ● 출판사_ (재) 동아시아연구원 ● 발행일_ 2011년 7월 29일
- 가 격_ 15,000원 ● ISBN 978-89-92395-16-8 93340
- 문 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번지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한국인이 보는 “한국인”, 그 변화를 추적하다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정치적 정체성은 정치공동체 속의 ‘우리’(we)와 외부의 ‘그들’(they)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의 경우 오랜 세월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 혈연적,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지닌 채 살아왔기에 한민족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곧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에게는 유럽의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될 때 나타난 것과 같은 혈연적-종족적 의미의 정체성과 시민적-영토적 의미의 정체성 간에 괴리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과거와 같이 그리 간단하게 구분되거나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 분단으로 ‘한민족 한국가’라는 민족주의의 기본 원리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남북분단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남한 자체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이제 통일에 의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결합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최종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급속히 이완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대외 개방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로 우리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해진 이유다.

단행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연구원은 첫 “국민 정체성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듬해 단행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그 연장선에서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이내영 고려대 교수)가 공동으로 2010년 두 번째로 실시한 2차 국민정체성 조사를 통해 지난 5년 사이 생겨난 정체성의 변화와 지속을 비교의 시각에서 추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통섭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남한만의 “대한민국 정체성”,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시티즌십” 확산

이번 책은 모두 아홉 편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강원택은 남한에 국한된 국가정체성과 남북한을 모두 포함하는 민족정체성 간에 내재된 갈등에 주목하면서 남한만의 분리된 ‘대한민국 정체성’이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를 지적하고 있다. 이내영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하면서 5년 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타자의식’이 커졌고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신중한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와 세계화의 추세는 한국인의 국제관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숙중은 한국인 사이에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인의식과 책임성으로 표현되는 글로벌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보를 위해 외교력의 중요성을 경제발전 못지않게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신화 역시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자연재해, 질병, 경제위기 등 초국가적 이슈가 한국의 국익에 위협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비군사적 비전통적 안보 이슈의 중요성에도 관심이 높아졌음을 밝혔다.

“민주화, 다문화 시대”, 한국인을 새롭게 정의하다

정한울과 이곤수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민주적 시민성과 강한 성향의 민족주의가 공존하는 ‘민주적 민족주의’ 성향을 발견한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이 민족주의의 배타성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족 주권의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윤인진은 민족, 국민, 출신국의 조합이 서로 다른 재외동포, 탈북자,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서 한국인은 출생지와 혈통과 같은 종족적 요건과 국적과 법과 제도의 준수와 같은 시민적 요건을 동시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 두 가지 요건들이 서구사회에서처럼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황정미는 다문화주의의 수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문화 다양성과 다민족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한국인들이 아직 내면화하거나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가 앞으로 다민족·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 방향에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가정체성의 변화와 새로운 국가의제의 등장

이러한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국가의제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명제는 한국인이 원하는 국가의제를 공정한 분배와 복지국가 구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공존의 법칙이 통하는 다원적 통합사회 건설,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국가 건설 그리고 통일국가 건설과 국제리더십 발휘 등 크게 다섯 분야로 정리하면서 사회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성장 정책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옥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물질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성향이 세대에 걸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제시했다. 물질주의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과 지위의 의미가 다른 가치들을 압도하고 물질적 성공에 천착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물질적 이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주요 사회 쟁점들에 대한 선호를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화하는 “한국인”의 도전과 기회, 우리의 선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로 지난 5년 사이 한국 사회의 내부 구성의 다양성은 더욱 증대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의 속성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의 신화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시대적 환경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발전 또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체성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독자들은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진지한 탐색의 결과를 《한국은, 우리는 누구인가?》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차

- 1장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 강원택
- 2장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이내영
- 3장 한국인의 안보와 대외인식 | 이신화
- 4장 글로벌정체성과 한국의 외교 | 이숙중
- 5장 한국사회 변화와 국가의제 | 문명재
- 6장 민주주의는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나, 약화시키나?
_2005년, 2010년 데이터 비교를 통해 본 민주적 민족정체성의 가능성 | 정한울·이곤수
- 7장 민족에서 국민으로_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변화 | 윤인진
- 8장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과 국가정체성 | 황정미
- 9장 한국인의 물질주의 | 이용옥

- 부록 프로젝트 개요 / 질문지 / 결과비교표



필자소개

강원택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편저),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Protest Voting and Abstention in Plurality rule elections: An Alternative Public Choice Approach” 등이 있다.

문명재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민주주의와 정책과학》(공저), 《이명박 정부의 국가관리》(공저), *Public Administration in East Asia: Mainland China, Japan, South Korea, Taiwan*(공편), *Transforming Korean Public Governance: Cases and Lessons* 등이 있다.

윤인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공저), “재외한인연구,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야 하나?”,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 북한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Multicultural Minority Groups and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Korean Society” 등이 있다.

이곤수 | EAI 거버넌스연구팀장. 대구대학교 행정학 박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주요 논저로는 “The Politics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s,” “사회적위험과 위기대응적 사회정책의 평가,” “Economy President?: Exploring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Approval of Myung-bak Lee” 등이 있다.

이내영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1, 3, 4》(공편),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ft Power in East Asia,” “ROK-US Alliance and Changing Public Opinion,” “합리적 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 유권자인가?,” “국제여론을 통해 본 중국 위협론의 평가와 전망”,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등이 있다.

이숙종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AI 원장.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회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공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공편), “The Assertive Nationalism of South Korean Youth: Cultural Dynamism and Political Activism,” “Democratization and Polarization of Korean Society” 등이 있다.

이신화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글로벌리더십센터 소장.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Human Security in East Asia(저서), South Korean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편저), “North Korean Questions: Taking Stock of 2008,” “North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From Concepts to Practices,” “유엔과 보호책임(R2P)” 등이 있다.

이용욱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국제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The Japanese Challenge to the American Neoliberal World Order: Identity, Meaning, and Foreign Policy*, “The Evolution of Korean Foreign Labor Policy in Global Context: Toward the Politics of Societal (In)Security?” “Soft Power as Productive Power” 등이 있다.

정한울 |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 논저로는 《박근혜 현상: 진보논객, 대중 속의 박근혜를 해부하다》(공저), “이슈와 한국정당지지의 변동”(공저),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과 민족정체성”(공저), “Fluctuating Anti-Americanism and ROK-US Alliance”(공저) 등이 있다.

황정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최근 논저로는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공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공저), 《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공저),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는 연구활동의 성과를 단행본,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워킹페이퍼, 이슈브리핑 등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회의와 포럼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권한·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국민여론·소수정부·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5.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6.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